

numbers 제 125호



주요 내용

2021.12.24

1. 이번 주 주제 : [2021 한국인의 종교활동 및 종교인식]
2. 최근 언론보도 통계
 - [2020년 신혼 부부 통계]
2015~2020년 초혼 신혼부부 100쌍 중 45쌍, '자녀 없다!'
 - [수도권 인구 이동 현황]
경기도가 인구 블랙홀!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홈페이지 | www.mhdata.or.kr
E-mail | mhdata@mhdata.or.kr
전화 | 02.322.0726

기독교 통계

2021년 개신교 호감도, 작년 대비 소폭 상승!

올해 초 우리 연구소 조사 결과, 한국교회 신뢰도가 21%로 작년 초 코로나 직전 32%보다 11%p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한국교회 평가는 어떻게 되었을까? 한국리서치가 종교별 호감도를 최근 발표했는데, 타 종교는 1년 사이 약간 하락하거나 비슷했는데, 개신교만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코로나19 초기에 신천지, 광화문집회 등 일련의 사건들이 개신교에 얼마나 크게 부정적 영향을 끼쳤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아직까지 한국교회 신뢰도나 호감도는 천주교나 불교에 비해 어느 정도 격차를 두고 낮은 위치에 있지만, 이번 조사결과 한국교회의 대국민 호감도가 반등했다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현재 무종교인이 종교인보다 많아지는 탈종교화 시대에서 한국교회는 리딩 종교로서 사회의 부패를 막고,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지키면서 사회를 통합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안고 있다.

이번주 '넘버즈' 125호는 코로나 시대 한가운데에서 한국인들의 종교 활동 및 종교인식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겠다. 현재의 한국 종교 현황을 이해하고 한국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할지 방향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 자료 출처(생산자)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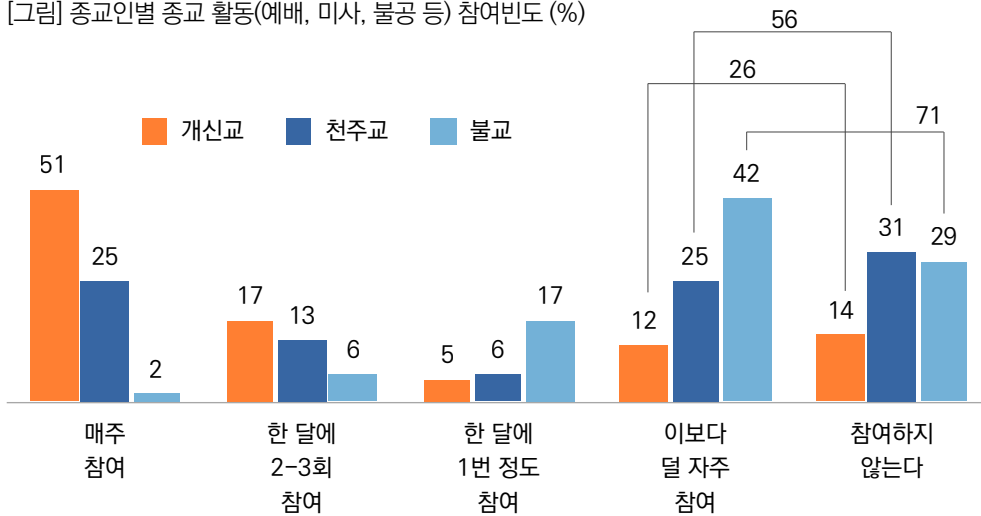
1



매주 종교활동 참여율, ‘개신교인’ 51%로 종교인 중 가장 높아

- 최근 한국리서치가 발표한 「종교인구 현황과 2021년 종교 활동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개신교인의 51%가 ‘매주 종교 활동에 참여한다’고 응답해 천주교인과 불교인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천주교인은 25%, 불교인은 2%였다.
- 종교 활동 참여 빈도가 ‘한 달에 1번 미만’은 ‘불교’ 71%, ‘천주교’ 56%, ‘개신교’ 26%로 ‘개신교’가 가장 낮았다.

[그림] 종교인별 종교 활동(예배, 미사, 불공 등) 참여빈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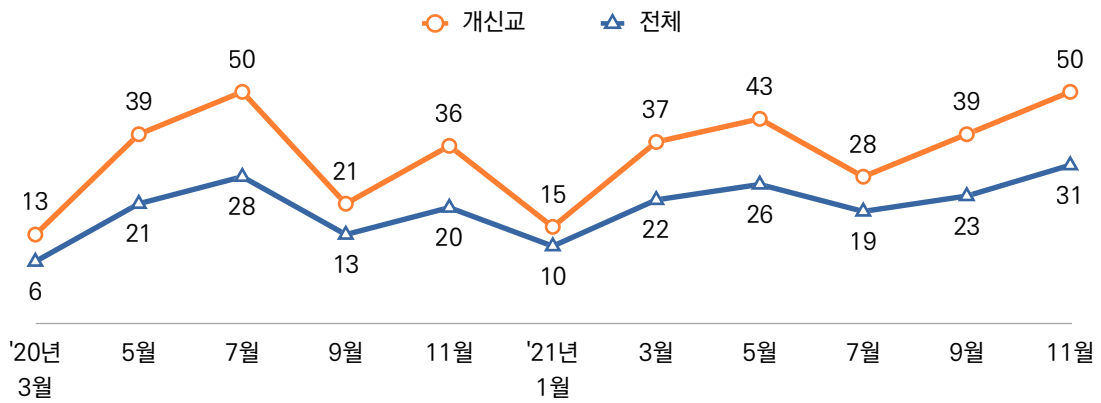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 여론, '종교지표-2021년: 종교인구 현황 종교 활동', 2021.12.8.(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1.11.26.-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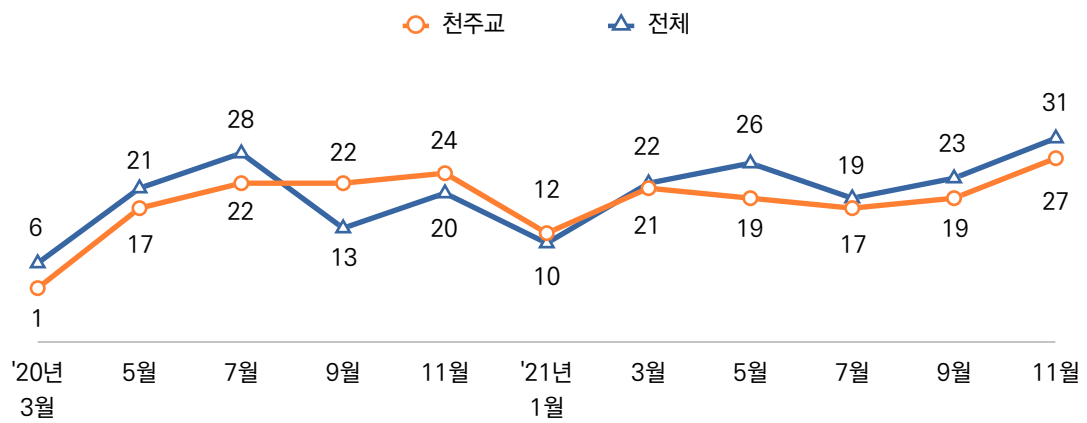
● 개신교인, 지난 7월 이후 종교활동 참여율 지속적으로 증가

- 한국리서치에서 각 종교인의 종교활동 참여율(지난 2주간 예배 등 종교모임에 참석한 경험)을 코로나19 발생 시점인 작년 3월 이후 매월 추적해 왔는데, 주요 종교인 중에서 상대적으로 종교활동에 적극적인 개신교인의 종교활동 변화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 개신교인의 종교활동 비율은 타 종교에 비해 뚜렷하게 높았는데 특히 지난 7월 이후 꾸준히 높아져 11월에는 50%까지 참여율이 올라온 것으로 나타났다.
- 천주교인은 종교인 전체평균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고, 불교인은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종교활동률이 10% 이하의 낮은 비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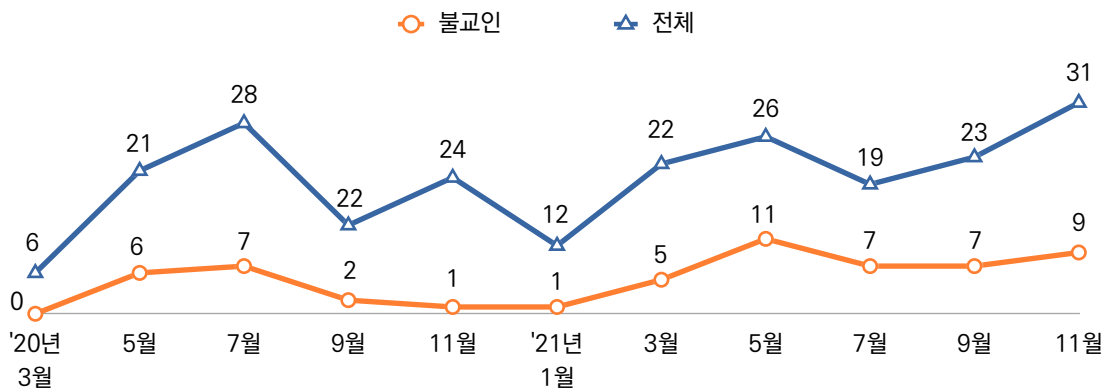
[그림] 개신교인의 종교활동 추이 (지난 2주간 예배등 종교모임 참석한 경험, 2020.03 ~ 2021.11, 종교인 전체 비교)



[그림] 천주교인의 종교활동 추이 (지난 2주간 예배등 종교모임 참석한 경험, 2020.03 ~ 2021.11, 종교인 전체 비교)



[그림] 불교인의 종교활동 추이 (지난 2주간 예배등 종교모임 참석한 경험, 2020.03 ~ 2021.11, 종교인 전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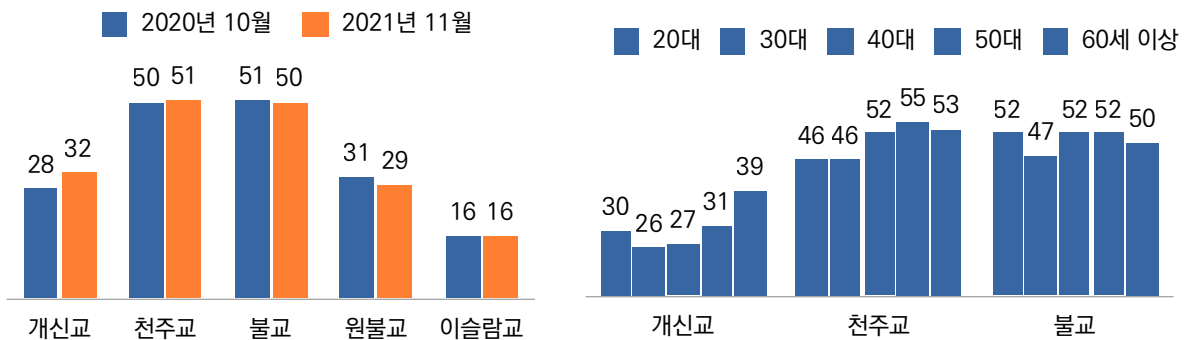
2



개신교 호감도, 천주교, 불교에 이어 3위이지만 작년 대비 소폭 상승!

- 5개 주요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질문하면서, 0도는 매우 차갑고 부정적인 감정, 100도는 매우 뜨겁고 긍정적인 감정, 50도는 부정적이지도 긍정적이지도 않은 감정으로 응답받아 평균값을 산출한 결과, 천주교 51점, 불교 50점, 개신교 32점, 원불교 29점, 이슬람교 16점 등으로 나타나 천주교와 불교가 가장 높았고, 개신교는 두 종교에 비해 어느 정도 격차가 벌어진 3위로 나타났다.
- 개신교를 제외한 타 종교는 1년 전에 비해 호감도가 대체로 하락하거나 변화가 없는데, 개신교만 호감도가 약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 종교별 호감도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약간씩 차이를 보이는데, 개신교는 30~40대에서, 천주교는 20~30대에서 가장 낮았고, 불교는 연령별 호감도 차이가 크지 않았다.

[그림] 5개 종교에 대한 호감도(100점 만점 평균점수) (점) [그림] 연령별 3대 종교 호감도(100점 만점 평균점수) (점)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종교지표-2021년:주요 종교 호감도 및 종교 효능감', 2021.12.15.(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1.11.26.-29)
 ** 질문방식 : 0도는 매우 차갑고 부정적인 감정, 100도는 매우 뜨겁고 긍정적인 감정, 50도는 부정적이지도 긍정적이지도 않음.

● 천주교/불교는 호감비율이 비호감비율보다 높고, 개신교는 비호감비율이 더 높아!

- 이번에는 0~49점은 부정적, 50점은 보통, 51~100점은 긍정적 응답으로 간주하여 비율로 정리해 보면, 개신교의 긍정률(호감비율)은 18%로 천주교나 불교에 비해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적으로 천주교와 불교는 호감비율이 비호감비율보다 높았으며, 개신교, 원불교, 이슬람교는 비호감비율이 높았다.

[표] 주요 종교에 대한 호감도 응답 비율**

종교	비호감비율 (0~49점)	보통 (50점)	호감비율 (51~100점)	계
개신교	61	21	18	100
천주교	29	30	40	100
불교	31	31	39	100
원불교	60	32	8	100
이슬람교	83	15	2	100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종교지표-2021년:주요 종교 호감도 및 종교 효능감', 2021.12.15.(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1.11.26.-29)
 ** 질문방식 : 0도는 매우 차갑고 부정적인 감정, 100도는 매우 뜨겁고 긍정적인 감정, 50도는 부정적이지도 긍정적이지도 않음.
 *** 합이 100이 안되는 경우는 rounding error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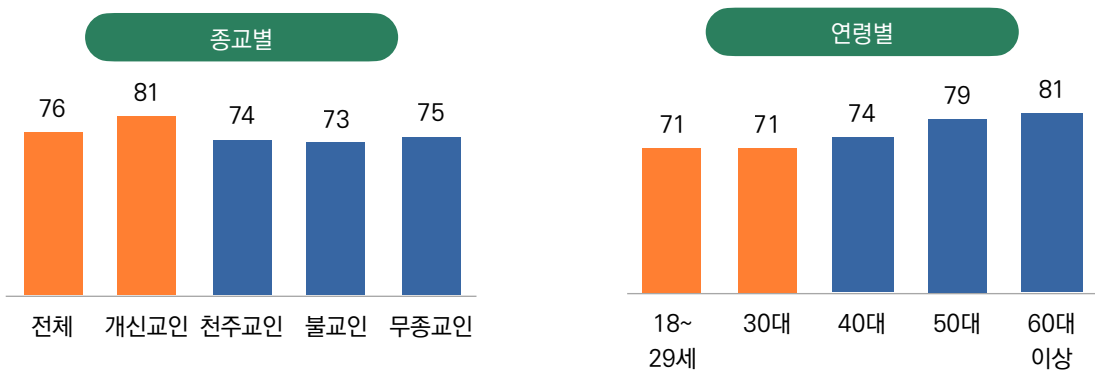
3



‘종교가 한국 사회에 영향을 준다’ 76%!

- 우리 국민은 종교가 한국 사회에 주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응답했을까? 76%가 ‘종교가 한국 사회에 영향을 준다’고 응답했다. 그만큼 종교가 한국 사회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았다.
- 종교인별로는 ‘개신교인’의 81%가 ‘종교가 한국 사회에 영향을 준다’고 응답해 종교인 중에서는 가장 높았으며, 종교가 없는 ‘무종교인’의 경우도 75%로 응답해 주목된다.
- 종교가 한국사회에 영향을 준다는 인식은 연령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종교 관심도가 낮은 20-30대 젊은층의 경우도 70%가 넘는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림] 종교가 한국 사회에 주는 영향력 (‘영향을 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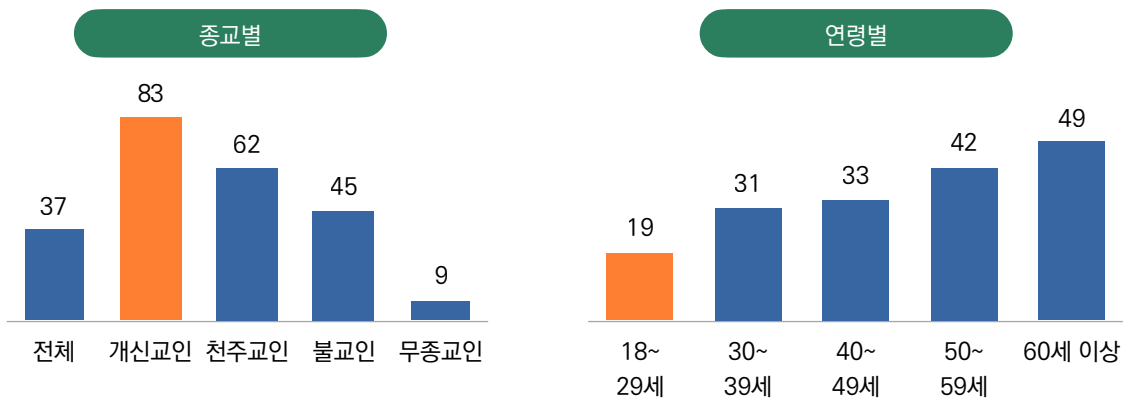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종교지표-2021년·주요 종교 호감도 및 종교 효능감', 2021.12.15.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1.11.26.-29)

● ‘내 삶에 종교가 영향을 준다’, 개신교인이 83%로 가장 높아

- 그렇다면 종교가 내 삶에 주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식할까? ‘개신교인’의 83%가 ‘내 삶에 종교가 주는 영향을 준다’고 응답해 종교인 중에서는 가장 높았다. 그만큼 개신교인의 경우 그들의 종교가 자신에게 큰 영향을 준다는 인식이 강했다.
- 20대의 경우 19%만이 ‘종교가 자신의 삶에 영향을 준다’고 응답해 대부분의 20대 청년이 종교와 무관한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젊은 세대의 종교에 대한 태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수치이다.

[그림] 종교가 자신의 삶에 주는 영향력 (영향을 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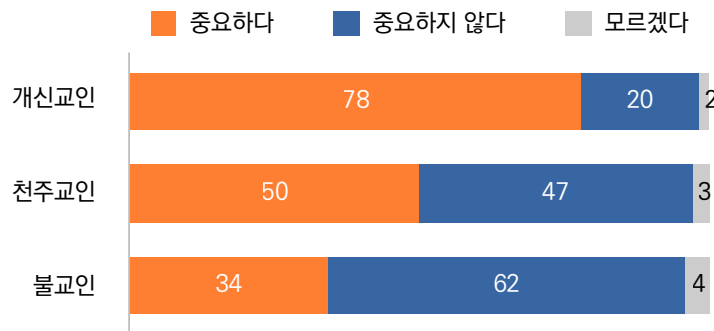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종교지표-2021년·주요 종교 호감도 및 종교 효능감', 2021.12.15.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1.11.26.-29)

● ‘종교 활동, 내 삶에서 중요하다’ 개신교인 78%, 천주교인 50%, 불교인 34%

- 종교인에게서 종교 활동은 삶에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까? 개신교인의 대부분(78%)은 ‘종교 활동이 내 삶에서 중요하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불교인(34%), 천주교인(50%)보다 크게 높은 수치이다. 이는 개신교인이 타 종교인보다 종교성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림] 종교인별 종교활동의 중요성 (%) ('종교활동이 내 삶에서 중요하다')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 여론, '종교지표-2021년: 종교인구 현황 종교 활동', 2021.12.8.(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1.11.26.-29)
 ** 4점 척도 질문으로 '매우+약간', '별로+전혀'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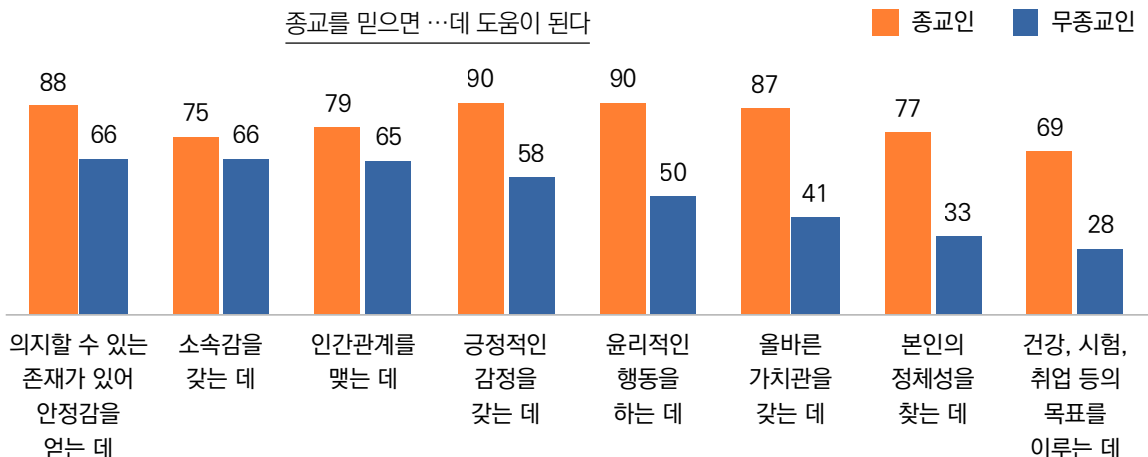
4



종교의 효능감, 종교인의 경우 '긍정적 감정, 윤리적 행동, 안정감!'

- 종교가 삶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종교의 효능감에 대해 알아본 결과, 종교인의 90%는 '긍정적인 감정을 갖는 데', '윤리적 행동을 하는 데' 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했다. 또 종교인의 88%는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있어 안정감을 얻는 데'(88%) 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했다. 즉 종교인은 종교를 믿음으로 인해 긍정적 감정, 윤리적 행동, 안정감 등의 효능감을 느끼고 있다.
- 무종교인은 66%가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있어 안정감을 얻는 데'와 '소속감을 갖는 데' 각각 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했고, 다음으로 '인간관계를 맺는 데' 65% 등의 순으로 높았다. 무종교인의 경우 코로나 시대에 종교를 믿게 될 경우 소속감과 인간관계의 효능감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림] 종교를 믿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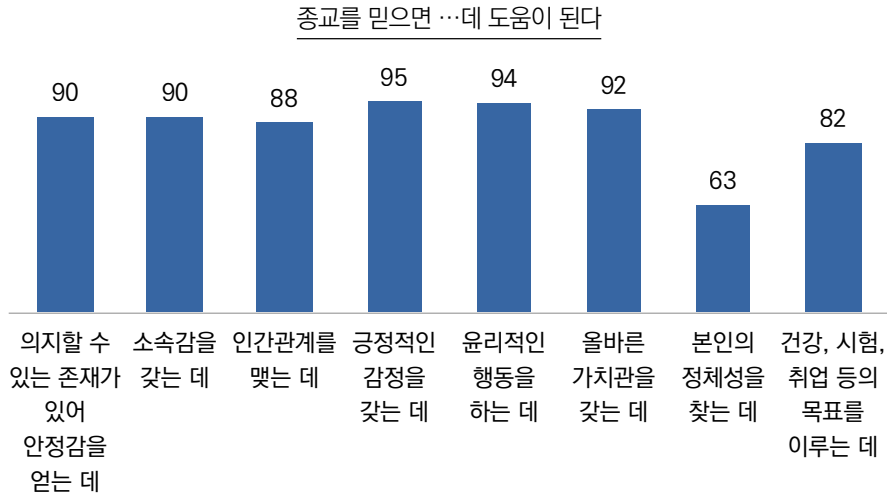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종교지표-2021년:주요 종교 호감도 및 종교 효능감', 2021.12.15.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1.11.26.-29)
 ** 4점 척도 질문으로(매우+약간_ 도움이 된다 비율임)

● 개신교인, 타종교인보다 종교적 효능감 훨씬 높아

- 개신교인들의 종교 효능감을 살펴보면, 대체로 타종교인보다 종교적 효능감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개신교인의 종교적 효능요인별 중요도 순위는 타종교인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림] 종교를 믿는 이유(개신교인)





시사점

이번 한국리서치의 조사 결과를 보면 ‘종교가 한국 사회에 영향을 준다’에 대해 개신교인은 81%가 동의했고, 천주교인은 74%, 불교인 73%가 동의해서 개신교인이 다른 종교인보다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을 더 많이 인정했다. 개신교인들은 자신의 종교가 사회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도 영향을 준다고 대부분(83%) 생각하고 있다. 천주교인들은 62%가, 불교는 절반이 안되는 45%만이 종교가 자신의 삶에 영향을 준다고 응답했다. 종교 효능감에서도 개신교인이 다른 종교인보다 훨씬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개신교인이 느끼는 종교적 효능감은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있어 안정감을 얻는다’, ‘긍정적인 감정을 갖는다’, ‘올바른 가치관을 갖는다’, ‘건강, 시험, 취업 등의 목표를 이룬다’ 등 개인적 측면과 ‘소속감을 갖는다’, ‘인관관계를 맺는다’, ‘윤리적인 행동을 한다’ 등 사회적 측면 모두에서 높은 효능감을 갖는다. 이를 정리하면 개신교는 다른 종교보다 개인과 사회 모두에 대한 현실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왜 개신교는 현실 영향력이 다른 종교보다 높은 것일까? 우선은 교리적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하나님 뜻을 생활 속에서 적극적으로 행하라는 말씀은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 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창 1:28),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마 7:21) 등이 그 가르침이다. 두 번째로는 개신교인이 종교 활동을 다른 종교인보다 더 활발하게 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불교는 종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종교가 아니니까 차치하고서라도, 천주교인도 개신교인에 비해서는 종교 활동을 더 적게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개신교인은 종교 활동을 통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 내면화하고 이를 실천하는 동력을 얻게 되는데 이 점이 개신교의 현실 영향력을 높여준다. 셋째는 종교 활동이 내 삶에서 중요하다는 인식이 천주교인은 50%, 불교인은 34%였는데 개신교인은 이보다 훨씬 높은 78%였다는데서 보듯, 개신교인은 종교 활동에 매우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종교 활동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 활동을 중요시하지 않는다면 종교 활동의 영향력은 높지 않겠지만, 개신교인은 종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종교 활동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위 3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보면,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긍정적 상호작용이 개신교인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히 10:23~25)는 말씀에서 보듯 ‘모이는 교회’에서의 배움이 ‘흩어지는 교회’로의 실천으로 이어지고 ‘흩어지는 교회’에서 받은 상처와 아픔 그리고 소진된 에너지가 ‘모이는 교회’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선순환이 개신교인의 삶에서 큰 축으로 자리 잡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상황 혹은 그 이후를 바라보면, 많은 고민이 ‘모이는 것’에 모아지는 것 같다. 예배 모임, 친교 모임, 교육훈련 모임, 봉사 모임 등 갖가지 모임에 대한 참여 열기가 떨어지는 것을 우려한다. 이런 우려는 일리가 있고 또 실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모이는 것’을 코로나19 이전으로 되돌릴 수는 없다. 왜냐하면 모이는 것의 약화는 단지 코로나19 때문만이 아니라 이미 사회적 흐름으로 있어왔기 때문이다. 코로나19는 이 흐름을 더 빨리 가져오게 하는 계기여서 코로나19가 종식되어도 이 흐름을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그러므로 이제 교회는 모이는 것이 약화되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교회의 본질은 공동체인데, 달라진 사회 환경 속에서 어떻게 공동체성을 유지할 것인지 많은 고민과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개신교가 여전히 개인의 삶과 사회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과 기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언론 보도 통계

1. [2020년 신혼 부부 통계]
2015~2020년 초혼 신혼부부 100쌍 중 45쌍, '자녀 없다'!
2. [수도권 인구 이동 현황]
경기도가 인구 블랙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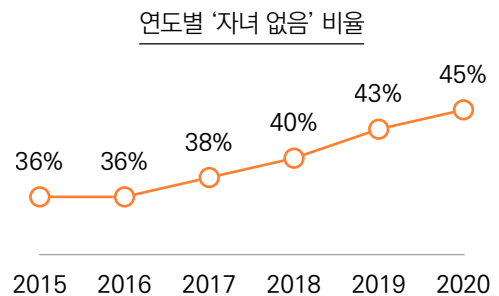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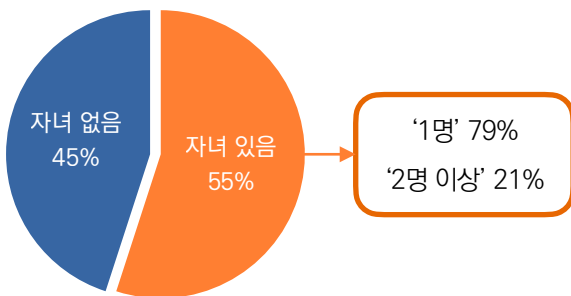
1. 2020년 신혼 부부 통계



2015~2020년 초혼 신혼부부 100쌍 중 45쌍, '자녀 없다!'

-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5~2020년 초혼 신혼부부의 자녀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신혼부부의 무려 45%가 자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36%와 비교해 5년 새 9%p 증가한 수치다.
- 신혼부부 수는 감소(2019년 대비 2020년 6% 감소)하는 상황에서 무자녀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인구 감소의 심각성이 우리 눈앞에 왔음을 보여주는 데이터이다.

[그림] 2015-2020 초혼 신혼부부 자녀 유무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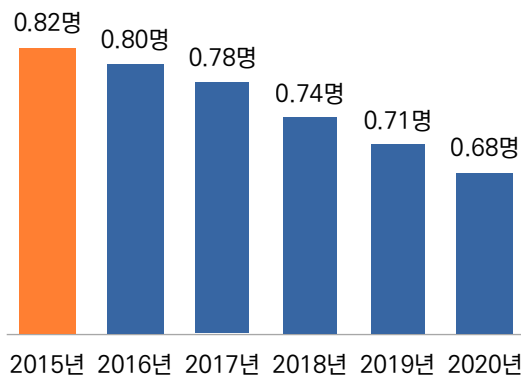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계청, '2020년 신혼부부 통계', 2021.12.9(2015.11.1.-2020.10.31.까지 혼인 신고한 신혼부부 118.4만 쌍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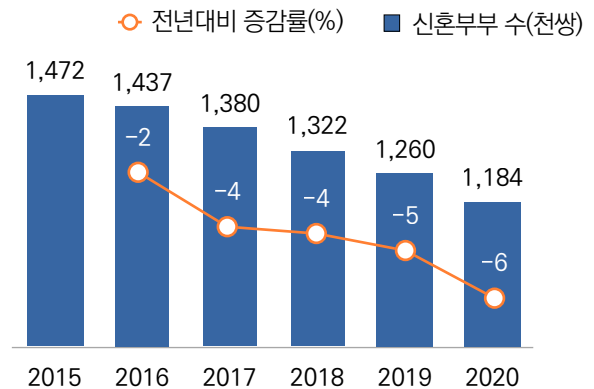
● 신혼부부 평균 자녀 수, 2016년 0.80명 → 2020년 0.68명으로 5년 사이 17% 감소!

- 신혼부부의 자녀가 있는 비율이 점점 줄고 있는 가운데, 자녀가 있는 부부도 그 자녀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2015년에 평균 자녀수가 0.82명이었는데, 2020년에는 0.68명까지 떨어져 5년 사이 17%가 감소했다.
- 전체 신혼부부 수도 계속 줄고 있는데 2016년 144만 쌍에서 2020년 118만 쌍으로 5년간 18% 감소했다. 특히 전년 대비 증감율을 보면, 2020년에 -6%로 감소율이 컸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결혼 건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

[그림] 초혼 신혼부부 평균 자녀 수



[그림] 신혼부부 수(쌍) 추이(초재혼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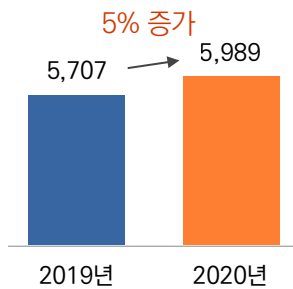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계청, '2020년 신혼부부 통계', 2021.12.9(2015.11.1.-2020.10.31.까지 혼인 신고한 신혼부부 118.4만 쌍 대상, 2019년 이하 수치는 각 연도별 '신혼부부 통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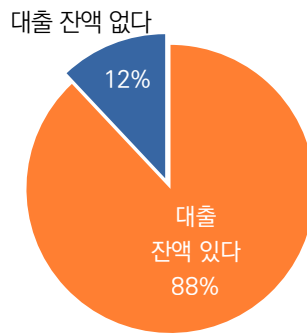
● 신혼부부, 지난 1년 사이 소득 증가율보다 대출 증가율이 3배 이상 더 높아!!

- 신혼부부(초혼)의 월 평균 소득은 5,989만 원으로 2019년(5,707만 원)에 비해 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다수(88%)의 신혼부부(초혼)는 금융권에 대출을 안고 있는데, 대출 잔액은 1억 3,258만 원으로 2019년(1억 1,208만 원)에 비해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 증가율보다 대출 증가율이 3배 이상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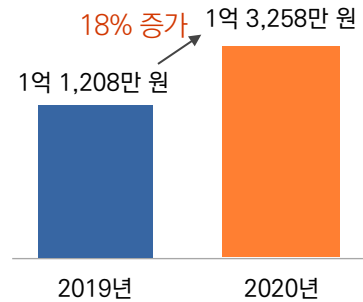
[그림] 초혼 신혼 부부 월 평균 소득 (맞벌이 vs 외벌이)



[그림] 초혼 신혼부부 대출 현황



[그림] 초혼 신혼부부 대출 잔액(중앙값)



*자료 출처 : 통계청, '2020년 신혼부부 통계', 2021.12.9(신혼부부는 2015.11.1.-2020.10.31. 까지 혼인 신고한 부부)

2. 수도권 인구 이동 현황



경기도가 인구 블랙홀!

- 시도 간 순이동 인구를 보면, 대부분의 지역이 순유출(전입인구 < 전출인구)이 나타났고, 세종, 경기, 경남, 제주만 순유입(전입인구 > 전출인구)이 나타났다.
- 유출된 인구는 주로 경기로 모여드는 것으로 나타났다.(순유입 17만 6천명)
- 순유입 인구가 많은 지역은 경기, 경남(1만 5천 명)이며, 순유출 인구가 많은 지역은 서울(-4만 8천 명), 부산(-2만 7천 명), 경북(-2만 7천 명)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020년 시도간 순 이동 인구 (전입인구 - 전출인구)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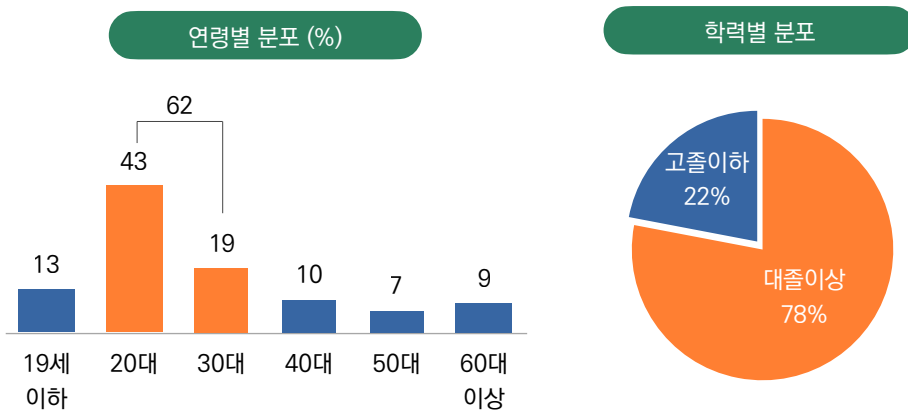


*자료 출처: 통계청, '2020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집계 결과, 인구특성 항목' 2021.11.29. (2020년 11월 1일 0시 기준 전국의 20% 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면대면, 인터넷, 모바일, 전화조사 방법을 통해 조사함)

●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인구 중 20-30대 청년이 62% 차지!

- 작년 한 해 동안 서울/수도권으로 유입된 인구는 총 97만 8천 명이었고, 유출된 인구는 86만 2천명으로 유입인구가 13% 더 많았다.
- 거의 100만 명에 육박하는 유입 인구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20-30대 청년들이 62%나 차지하고 있었고, 대졸자 비중이 78%나 되었다.
- 지방의 대졸 청년들이 취업 문제로 서울/수도권에 대거 유입되는 현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수치인데, 이런 현상이 지속될수록 비수도권 지역의 소멸위험성은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다.

[그림] 2020년 수도권 유입 인구의 연령별/학력별 분포



*자료 출처: 통계청, '2020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집계 결과, 인구특성 항목' 2021.11.29. (2020년 11월 1일 0시 기준 전국의 20% 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면대면, 인터넷, 모바일, 전화조사 방법을 통해 조사함)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 금주와 다음주 미시행](#)

[전국지표조사\(4개 주요 조사기관\) 리포트 제58호 \(2021년 12월 4주\) -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등](#)

사회
일
반

[국민 10명 중 4명 “인권침해·차별 심각하다”](#)

조선일보_2021.12.21.

[코로나 2년, 안전=건강 인식...바이러스·사이버범죄 향후 최대 위협](#)

한국일보_2021.12.18.

[암 5년 생존율 70.3%로 향상 ...'가장 독한' 폐암도 20년 새 2.6배 호전](#)

한국일보_2021.12.21.

[우리나라 가구 평균자산은 5억253만원](#)

국민일보_2021.12.17.

[중장년 소득 3.8% 늘때 대출은 7.1% ↑ ...유주택자 1억원 '영끌'\(종합\)](#)

연합뉴스_2021.12.21.

[1년전 '전문직 배우자' 선호했던 2030...올해 1등으로 택한 직업은?](#)

조선일보_2021.12.23.

[육아휴직 '아빠' 비중 20% 첫 돌파...10년만에 20배로 늘어 4만명\(종합\)](#)

연합뉴스_2021.12.21.

[올해 외국인 취업자 85만5천명...외국인 16%는 자가 거주](#)

연합뉴스_2021.12.21.

[한국, 최근 5년간 무기 수출 세계 9위...한 계단 상승](#)

연합뉴스_2021.12.20.

[BTS·임영웅, '올해를 빛낸 가수·노래' 30대 이하·40대 이상 조사에서 각각 1위](#)

동아일보_2021.12.20.

["지난해 국민 43% 문학책 읽었다"...평균 독서량 2.3권](#)

연합뉴스_2021.12.21.

['늙음'으로 차별할 수 없게... '행복한 노동자' 가이드라인 세워야](#)

경향신문_2021.12.21.

[서울 시민 66% “이산가족문제 빨리 해결해야”](#)

중앙일보_2021.12.22.

직장

[직장인 70% “월급 받은 만큼만 일하면 된다…열심히 해도 안 올라”](#)

동아일보_2021.12.14.

[중소기업인이 뽑은 사자성어…올해 '전호후량'·내년 '중력이산'](#)

연합뉴스_2021.12.21.

기업

[작년 월급쟁이 평균연봉 3천828만원…'역대 연봉' 92만명\(종합\)](#)

연합뉴스_2021.12.22.

[미국 직장인 번아웃…코로나 이종고로 울들어 던진 사표 최다치](#)

매일경제_2021.12.22.

기후환경

[뜨거워진 지구의 경고… "히말라야 빙하, 10배 빨리 녹고 있다"](#)

한국일보_2021.12.21.

[10년새 1인당 식품 폐기물 20% ↑·처리비용 연 1조…환경 '발목'](#)

연합뉴스_2021.12.22.

경제

[모두가 문 닫을때, 1만1500개 더 생겼다…카페보다 창업 인기라는 이 가게](#)

매일경제_2021.12.23.

[2030 일용직 10만명 줄고, 60세 이상 2만명 증가](#)

동아일보_2021.12.20.

기독교

[20대 신앙인 68% “종교활동 중요치 않다”](#)

기독신문_2021.12.13.

[예배 참석한 성도 정신건강 더 좋다](#)

국민일보_2021.12.22.

* 이슈 큐레이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건가? 한국 자본주의는 망가졌다”](#)

조선일보_2021.12.24.

["코로나 후 극단선택 늘 것…2030·여성 특히 위험하다"](#)

중앙일보_2021.12.24.

[기획기사1] 코로나19 스페셜리포트 (중앙일보)

[코로나 블루, 국민 마음도 위중하다](#) 2021.12.18.

[“자존감 떨어지고 불안·무기력” 상담 2년 전보다 129% 증가…국민 심리방역도 시급](#) 2021.12.18.

[하이킹·클라이밍·조깅…뭐든 ‘~ing’ 해야 팬데믹 이긴다](#) 2021.12.18.

[“감염 재난은 보이지 않는 적과의 긴긴 싸움…우울감 당연, 이타심이 가장 좋은 마음 방역”](#) 2021.12.18.

[백화점 명품관 ‘오픈런’ 행진…중저가는 매출 수백억씩 감소](#) 2021.12.18.

[비대면 시대, 아이 돌봄 공백 없는 혁신적 시스템 구축해야](#) 2021.12.18.

[기획기사2] ‘목소리 사기’ 7000억 시대 (중앙일보)

[1. 영혼 잡아먹는 '검은 목소리'…엄마는 아이 앞 목숨 끊으려 했다](#) 2021.12.10.

[2. '김민수 검사'에 자 숨진지 2년…'엄마 나야' 끔찍문자 계속 온다](#) 2021.12.11.

[3. 공중 화장실서 '똑 똑 똑 똑'…29명은 11억 이렇게 뜯겼다](#) 2021.12.12.

[4. 신분증 사진만 보냈는데 1.6억 증발…은행 간편 서비스의 비극](#) 2021.12.13.

[5. 테슬라 국내매출 날렸다…비대면의 역설, 목소리 믿어버린 죄](#) 2021.12.13.

[6. 한남동 명품시계점에 간 수거책…3세대 보이토피싱 수법은](#) 2021.12.13.

[7. "폰만 관리, 월400만원 번다"…주부·학생 노리는 '꿀알바'의 덫](#) 2021.12.13.

[8. "저금리 대출" 링크의 유혹…앱 까는 순간 당신은 '그놈 포로' \[영상\]](#) 2021.12.13.

[9. 이 문자에 클릭하면 게임 끝…1532건 '은행문자' 4가지 비밀](#) 2021.12.13.

[10. "피해 절반 보상하는 핫은행"…"우린 못해" 韓은행들의 핑계](#) 2021.12.13.

[11. 딱 보면 척 아는 '남다른 축'…'그놈' 잡아내는 의외의 '흑기사'](#) 2021.12.13.

[12. 4억 수거책에 "피고도 피해자"…판사 말에 울분 터뜨린 유족](#) 2021.12.13.

[13. 현금 편취 年2만건인데…"이체·송금만 피싱"이란 금감원, 왜](#) 2021.12.13.

[14. "이대론 못 죽겠다"…'명청비용' 5500만원 날린 30대 살린 것](#) 2021.12.13.

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자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림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노량진교회, 당진동일교회, 대구내일교회, 대전선창교회, 동행한빛교회, 만나교회, 밀양남부교회, 백주년기념교회, 베다니교회, 새에덴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문교회, 서현교회, 선창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학대교회, 수원북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광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성중앙교회, 안양감리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예은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류교회, 올리브교회, 이룸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전주기쁨의교회, 주안장로교회, 중앙성결교회, 지구촌교회, 진주삼일교회, 충신교회, 창동염광교회, 탑동감리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성교회, 한소망교회(가나다 순)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재)기독교선교해설재단, 기아대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사)사단법인 아시안미션, 서대문ESF, 서울노회아동부연합회(예장통합),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알파코리아,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장로회신학대학교, 제이제이경제연구소,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목회, 한빛누리, 한국기부문화연구소, 햇빛회, (재)CBS, CBMC 광주지식포럼, CBMC 행복한지회, CCC 사역연구, GoodTV, IFCJ 가정의 힘(가나다 순)

후원 기업 | (주)그랑블루, (주)마뜨, 메가리서치, (주)바이텍테크놀로지, (주)셀파 C&C, (주)시스코프, (주)예종세무법인,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튼건강과학, (주)하츠/(주)벽산, CNP코퍼레이션 (가나다 순)

후원 개인 | 고영관, 고영수, 고재환, 고현권, 구영생, 구정오, 금교성, 김관상, 김기혁, 김동하, 김명준, 김상근, 김상래, 김상로, 김석철, 김성열, 김성민, 김성은, 김숙정, 김시은, 김연진, 김영훈, 김용섭, 김윤철, 김윤환, 김은선, 김재욱, 김주룡, 김주형, 김지한, 김지현, 김현모, 김형태, 김홍일, 김흥기, 남성태, 류선자, 류지성, 문성준, 박노석, 박미경, 박상윤, 박세용, 박영철, 박영호, 박우빈, 박재찬, 박종철, 박종현, 박준상, 박지훈, 박진규, 박진철, 박찬주, 박형철, 박홍래, 반기민, 방승기, 배수정, 백인범, 서재승, 서해현, 석승호, 석진호, 선원규, 성창민, 송섭, 송으뜸, 신명자, 심기식, 안정호, 안태근, 양수민, 엄정석, 여삼열, 우애라, 유성민, 유형창, 윤동하, 윤여민, 이광호, 이대식, 이덕희, 이만민, 이미경, 이병희, 이삼열, 이상호, 이성근, 이성진, 이승철, 이영선, 이완중, 이윤찬, 이은라, 이인성, 이일영, 이재열, 이정규, 이정아, 이조형, 이주일, 이지형, 이창준, 이창현, 이춘봉, 이현, 이현규, 이현식, 이호택, 이훈희, 임성빈, 임현주, 장명희, 장병우, 장부식, 장우성, 장형철, 전응림, 전치영, 정부할, 정용철, 정종섭, 정준, 정준, 정하규, 정희수, 조병길, 조몽민, 조의환, 조준환, 조창오, 주학선, 지용선, 지중배, 진범수, 차용현, 최명영, 최상도, 최상현, 최용기, 최은아, 최준, 최준혁, 최현갑, 한재웅, 한홍근, 함용태, 호재민, 홍의숙, 홍혜숙, 황태기(가나다순)

신규 후원 | 주)리서치랩(도정화 대표), 구봉관, 김호아, 박현욱, 이경만, 정종권, 이성수, 이상호, 박세용

매월 신규후원자는 **당월 마지막 주에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드립니다.**

후원 방법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협력 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 CBS
(재) 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원장)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
김준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실장 | jy0113@mhdata.or.kr
유영민 | 목회데이터연구소 간사 | mhdata@mhdata.or.kr

MOU 기관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아드폰테스, (사)아시안미션, 크리스찬타임스, 한국IFCJ가정의힘,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연구소 소식

[리뉴얼을 위한 휴간 공고 및 [넘버즈] 배포 요일 변경]

- 다음주(12월 31일)는 [넘버즈] 리뉴얼을 위해 한 주를 쉽니다.
- 그동안 [넘버즈] 배포 시점이 금요일 오후 2시였는데, 내년부터는 매주 화요일 오후 4시로 변경하여 보내드립니다.